



유아 · 교사 · 학부모가 더불어 행복한

동일교육통신

인성 2019-3호

2019.6.28.(금)

발행인 신은숙

♣ 고운 마음을 기르는 동일 환경교육 ♣ 우리도 환경지킴이! ③

플라스틱 없는 하루

지난 2018년 8월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붉은바다거북이 방류 11일 만에 과자 봉지, 비닐 조각, 낚싯줄, 어망, 노끈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채 죽어서 발견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은 인체로 들어와 영향을 미칩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1)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친환경 빨대 사용하기

빨대의 편의성은 그대로이지만 쌀, 대나무, 옥수수로 만들어 몸에도 좋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자연분해 소재의 빨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종이 빨대 기술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우수해 음료 속에서 쉽게 풀어지지 않고, 종이 특유의 냄새나 이물감이 없어 음료의 맛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세탁물 찾을 때 비닐 빼고 오기



컵·빨대·비닐봉지·배달 용품과 함께 5대 1회용 플라스틱의 하나인 세탁물 포장용 비닐. 운반 과정에서 옷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비닐은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마련입니다. 연간 약 4억 장씩 버려진다는 일회용 세탁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3) 일회용 컵 보다는 개인 컵,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의 경우 자연 분해되려면 500년 이상이 걸리며,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대부분의 일회용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텀블러를 이용해주세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필요한 지금!
지구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